

2023. 6. 20.(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

안전지원과

안형준

2133-8515

사회안전팀장

엄삼용

2133-8533

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: 3매

담당자

박현희

2133-8535

### 동네 구석구석 생활 속 안전 6800여명의 자율방재단이 땀 흘린다

-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6800여명의 '자율방재단' 활동·6.20(화)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
- 재난유형별 자율방재단의 역할 및 활동내용, 심폐소생술 등의 긴급구조 등 교육
- 지역의 위험요인 발견해 제거, 재해복구, 방역활동 등 생활 속 안전 활동 참여
-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으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, 민간 방재 역량강화 중요

# 얼마 전 관악구는 폭우로 인해 도림천이 범람한 상황을 가정하고 '자율방재단'과 함께 현장훈련을 진행했다. 수위 상승에 따른 도림천 대피방송을 시작으로 주민대피와 통제 등 지역주민들이 훈련에 함께 참여했다.

지역주민들로 구성된 '자율방재단'은 현재 총 6,897명이 활동하고 있다. 이들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로 생활 속 위험요인 제거, 재해복구, 또 감염병에 따른 방역활동까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.

서울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태풍, 홍수, 폭염 등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역할도 커진 만큼, 현장 대응 능력 향

상을 위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은 6.20.(화) 오전 9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진행된다.

- 교육의 주요내용은 ▲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▲심폐소생술 등의 긴급구조 활동 ▲재난유형별 활동 내용 등 자율방재단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, 특히 여름철 폭염과 폭우 대비 활동에 대한 집중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.
- 시는 민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, 홍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상반기(폭염, 폭우), 하반기(한파, 폭설) 등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- 자율방재단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각 자치구의 「자율방재단 운영 및 조례」에 근거해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·운영되고 있으며 위험지역 예찰·신고,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,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-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최근 기후변화 등 재난발생의 원인과 피해가 복잡해지면서 생활 속 위험요소도 증가하고 있다”면서, “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며,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※ 사진자료



도림천 범람을 가정한 현장훈련에 참여한 '자율방재단'



산사태 위험지역 점검



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청소



자율방재단 방역 활동

